
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농업 및 통상 분야 정책기조

1. 농업 및 식품 분야

□ 농무부 장관 지명이 예상되는 인물들

- 농무부 장관직에는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임
- Sam Brownback: 캔자스 주지사. 캔자스 주를 운영하면서 트럼프의 농업 관련 및 세금 관련 정책기조와 굉장히 닮은 정책들을 수립 및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주를 이끌고 있음
- Chuck Corner: National Council of Farmer Cooperatives 회장. 특이사항으로 매릴랜드 주 민주당 책임자임
- Sid Miller: 텍사스 농무 위원장. 트럼프의 경선 과정 중에서 농업 관련 조언자로 트럼프를 도움
- Sonny Perdue: 전 조지아 주지사 (출처: New York Times 2016.11.16.)

□ 농장 정책

- 트럼프는 농기계, 농업 및 임산업 기업인 John Deere의 팬이라 자처하며, 미국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출되어 한다고 말 해왔음 (출처: agri-pulse.com)

□ 유전자 변형 농작물 관련

-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경선 과정 중 아이오와 주 경선에서 Ben Carson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보이자 Monsanto와 GMO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의견을 나타내었지만,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GMO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
- 하지만 Wall Street Journal의 11월 09일 기사에 따르면, 트럼프는 제품 라벨링 및 관련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자들이 좀 더 편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 이에 따라 GMO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(출처: agri-pulse.com)

2. 통상 분야

□ 통상 대표부 지명이 예상되는 인물들

- Dan DiMicco: 철강회사인 Nucor에서 QC관리자로 입사하여 CEO까지 재직하였으며, 중국의 무역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는 인물임. 트럼프의 경선 과정 중 무역 관련 정책 및 조언자로 재직하였음.
- Charles Boustany: 전직 의사이며, 루이지애나 주 출신으로 현재 하원 의원으로 재직 중임. 하원의 세금 위원회 소속이며, 공화당 측 추천 인물로 평가됨.

(출처: Politico Pro 2016.11.16./ New York Times 2016.11.16.)

□ 상무부 장관 지명이 예상되는 인물들

- Dan DiMicco: 통상 대표부를 비롯하여 상무부 장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음
- Lewis M. Eisenberg: 비공개 투자기업 Granite Capital International의 공동 창립자이며 다년간의 공직경력도 가지고 있음. 대표적으로 9.11 테러 당시 NY-NJ 항만교통관리공사의 위원장이었음
- Peter Thiel: 독일 태생으로 Paypal의 공동 창립자.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며, 현재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중임

(출처: Politico Pro 2016.11.16./ New York Times 2016.11.16.)

□ 무역 협정

-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자유무역의 단점을 꼬집으며 미국이 다시 성장하고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 간 자유무역 및 세계화의 움직임을 손봐야한다고 주장해옴. 트럼프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의 준비를 취임 1일차부터 개시할 예정이며, 100일 및 200일까지 단계적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발표한바 있음
- 취임 첫날, 트럼프는 NAFTA 개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. 이를 위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 NAFTA 탈퇴 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, 탈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연구하도록 지시할

것임. 아울러 미국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, 환경 및 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NAFTA 개정 의사를 통보할 것임. 또 통화정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 등에 무역 상대국들의 유해한 관행과 식품 안전, 국제적 인수합병의 호혜성 등을 조사하도록 할 예정임

- 100일째에는 NAFTA 재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.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주시하면서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중국에 대한 엄중 단속을 추진할 것임. 또 정보당국이 미·중 무역관계를 점검하도록 함
- 취임 200일째에는 트럼프는 NAFTA의 공식 탈퇴를 고려하면서 양자 무역협정의 추진을 지속할 것임. 이 메모는 NAFTA 탈퇴의 부정적 결과도 지적하였으나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그 부정적 여파는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임

(출처: CNN 2016.11.17.)